

태평양주보

UNIVERSITY OF HAWAII LIBRARY

Dec 29 '59 제

一一六〇호
서기 一九五九年十二月二十五日
단기 四一九九九年十二月二十五日

12/25 1959

사장 최백렬
주필 김창원
발행소 동지회관내
북킹거리 九三一
대금 一年十元
전화 八五〇八四九

十九일만에 아대통령이 귀환

(와싱턴 23일발 특이외) 23일 트일 와싱턴을 출발하여 3
대륙 11개국 2만 2천 마일의 여행을 마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오늘 자정 지난 19일만에 백악관에 귀환 곧 뒷마당에 세워진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켜다

이번의 아대통령의 여행은 역대 대통령이 재직중에 행한 여행중
가장 장거리의 것이었다.

아대통령의 귀환을 축하하려 나온 군중은 약 4천명. 외국
에서 백만명의 출연에 비교하면 극소수였는데 이것은 기온이
37도나 되는 저온도로 바람이 강하였고 또 밤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쿠의 방문, 외교의 성과

(와싱턴 23일발 특이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구라파 아세아 11개
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미국에서는 아대통령이 이번의 야심적
친선여행에서 예상외의 성과를 얻었다고 자랑하고 있다
이들 성과중, 와싱턴 외교전문가측은 아대통령이 금번의
친선여행을 통해서 아세아 제국 특히 중립정책을 주장하는
인도에서 친미기운을 높일 동시에 미국이 자유와 공동행
평화 등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방문제국에 강하게 인상준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 이들측에서는 인도 방문과 아울러 이번 여행의 큰 목적
의 하나였던 파리의 서측 수외회담에서 유대세양 조약 기구 제국
간에 의견차이를 전제하도록 일단 이 회담을 큰 과한 것이



(제 1면에 계속)

진행시켜. 동시에 수외회담개회를 四月十七일로. 또 강소를 파리로 결정할 것도 큰 성과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무성내각 일부에서는 아이젠하워대통령의 이번 여행에 의해서 동서 공존시대에 들어가는 단계에 있어서. 미국은 극히 유리한 입장에 놓이므로 친선기운은 도두어준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친선이라는 심리효과뿐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과 관련해서 미국무성당국에서도 친선기운으로 부터 생겨나오는 미국에 대한 기대에 미국이 어떻게 응답해나가야 되는가를 중시하고 만일 미국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지 않으면 반대로 영구화를 나타내지 않음을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아대통령은 예선구형은 유지하여야 한다는 강압력 때문에 대외원조를 확대할 수가 없고. 신년도의 대외원조 예산도 금년도와 거의 같아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이번의 아대통령의 여행에서 동서 공존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 전을 잘하여 큰 성과를 냈다고 하지만. 이를 반드시 면한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가 금후의 문제로서 주목되고 있다.

수외회담으로 국제정세 호전을 계획. 파리의회의와 금후의 국제외교

(와싱턴 12월 12일 밤. 공동.) 와싱턴 외교부는 동서 수외회담을 12월 17일. 파리에서 개최하겠다고. 서유럽 3국의 제안은. 이른바 '노련수선'이 기본에 수락하리라고 보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9월 캄푸. 데이비드에서 생긴 냉전 완화의 맹서해의 한 동서 공존시대의 본격적인 제1보는 다스리게. 금후의 국제정세는 호전하여 리스크이다. 냉전은 물론 제2차 대전 이후의 서유럽과 동서 수외회담개회의 시기와 의제에 대해서 예상과는 반대로 최우선적 결정된 것. 와싱턴에서는 놀라고 있다.



(제 2면에 제 1호)

그러나 위판권(을)가 누구에게서 이 회담에서 구비추소문제 등 일과 「버리」 문제등에 관한 「서구의」 구제안을 실행토드는 의견의 대립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음을 것을 주목하고 있다.

이 이외에서 동서 수외회담까지의 4개월간에 예상되는 「드골」 불린서 대통령의 「구비」 문 「이」에 병행해서 서방 4개국 권문가 회의등에서 서구의 내부 대립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는 아직 예측할 수가 없다 특히 서구의 「제 2」에 「파리」를 놓는가 안 놓는가는 「드골」 불린서 대통령 「태도」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것이 와싱턴 관측의 이치된 의견이다.

서구 수외가 이번의 「파리」 회담에서 동서 수외회담의 개최장소로서 「항」에 제 1바가 아니고 「파리」로 결정할 것 에 대해서 와싱턴 외교부에서는 「제 2」 회의 의 의 일이다 라고 놓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국 「불린서」 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것은 「드골」 대통령을 위해서 미영양국이 생각내것으로 이것은 이 다음 회의 다음 「모스크바」 「로」 등 각국 수도에서 돌려가며 연다는 「안」의 「양」해가 서구 수외간에 성립한 것을 의의하는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금후의 구제의 「에」 「우」 「수」 「이」 「아」 「정」 「기」 「적」 「의」 「수」 「외」 「회」 「담」 「의」 「계」 「속」 「이」 「최」 「종」 「적」 「권」 「의」 「를」 「가」 「지」 「고」 「구」 「제」 「외」 「교」 「의」 「가」 「장」 「중」 「요」 「한」 「경」 「로」 「로」 「서」 「등」 「장」 「한」 「것」 「은」 「극」 「히」 「의」 「의」 「가」 「기」 「고」 「다」

철강과 석탄 회사 추구의 최후 제안에 대한 「양」 「외」 「정」 「부」 「가」 「거」 「행」

(와싱턴 「드」 「골」 「반」 「대」 「의」 「의」) 「합」 「정」 「국」 「노」 「동」 「관」 「제」 「국」 「의」 「최」 「고」 「법」 「률」 「문」 「고」 「문」 「스」 「튜」 「워」 「드」 「호」 「르」 「엔」 「서」 「는」 「오」 「늘」 「철」 「강」 「스」 「티」 「라」 「이」 「고」 「표」 「본」 「의」 「구」 「제」 「에」 「해」 「결」 「되」 「지」 「않」 「음」 「은」 「면」 「회」 「사」 「추」 「구」 「의」 「최」 「후」 「제」 「안」 「에」 「대」 「한」 「것」 「은」 「「」 「가」 「나」 「온」 「회」 「원」 「의」 「투」 「표」 「를」 「영」 「국」 「(」 「월」 「+」 「일」 「로」 「부」 「리」 「+」 「트」 「일」 「까지」 「의」 「트」 「일」 「간」 「에」 「적」 「체」 「정」 「부」 「의」 「소」 「문」 「으로」 「한」 「다」 「고」 「발」 「표」 「한」 「「」 「로」 「르」 「만」 「서」 「는」 「발」 「표」 「와」 「동」 「시」 「에」 「쓰」 「임」 「의」 「표」 「선」 「반」 「대」 「의」 「해」 「서」 「이」 「투」 「표」 「는」 「한」 「지」 「않」 「아」 「고」 「구」 「동」 「도」 「로」 「부」 「되」 「기」 「리」 「어」 「는」 「하」 「였」 「다」

한일문제 해결은 일본태도에 달렸다
 "강행하면 불행올라"
 이의장, 꼬꼬추방응계비난

(서울 5일발 에이피 "합동") 리 대통령 제1보조자인 이기봉씨는 4일 일본이 한국이나 기타 국가를 다시 점복 하리라 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올해 초 십삼세의 민의원 의장인 이기봉씨는 인터뷰에서 한·일 양국은 결 국에 가서는 상호간의 본류를 해결해야 하며 그 해결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문제의 해 결여부는 일본측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그들은 4십년 간이나 우리를 지배하였으며 우리는 아직도 그들이 한 짓을 잊을 수가 없다고 덧붙여 말하였다. 리 대통령의 영도론을 받는 자유당의 '넘버 투 맨'이며 1940년 대통령선거에 부 동령으로 출마하는 이의장은 일본 기시 정부의 처사가 반 공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하였다. 올해 8십4세인 리 대통령은 일본이 공산주의에 못지않게 한국에 대한 큰 위협이 되어있다고 말하였다. 일본의 전 수상인 '하도야마' 씨보다 기시씨를 더 반공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가라는 질문에 이의장은 일본의 재일 교포 북송 계획을 긍정적 하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우리는 그것을 한국 정책과 관련시켜 고려해야 한다. '하도야마' 씨가 집권하고 있을 때엔 재일 한국인 교포가 철의 장막 뒤로 추방되는 일이 없었는 다 이에 비해 기시 수상 정부는 재일 한국교를 공산북한으로 추방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더욱 반공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기봉씨는 재일 한국인들의 북송이 끝내내 실행된다면 그것은 한·일 양국을 위해서 지극히 불행한 일일 것이라 지적하였다.

등록 제의란!

서독 기술사절단 끝내한

이미 합의된 원조협정 체결

외무부에서五日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독일연방 공화국」(서독)과의 기술원조 협정 체결을 앞두고 우리나라 산업실태를 파악하고자 기술원조 조사단이 머지않아 내한할 것이란 다. 그런데 이 조사단은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이미 양국간에 합의를 보고 있는 기술원조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시설을 시찰함은 물론 앞으로 서독 민간 자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가능성 여부에 대한 실태를 검토할 것으로 방금 계획은 「본」을 방문중에 있는 「조」외무장관에 의하여 서독 고위층과 사이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외교강화책 협의

유러브 공관장 회의 트일 열리다

서독수도, 본시에 있는 주독대사관으로부터 트일외무부에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제2차 유러브 지구 공관장 회의가 조외무장관 주재하에 예정대로 현지시간 삼오일(토)에 열렸다. 「김유래」주영국 「정일권」주프랑스 「손원일」주독일 「김영기」주이탈리아 「시응균」주러이 「기대사」 「김용식」주제네바 대표부 수석 이 참석 한 가운데 트. 四일 이틀 동안 열리는 이 회의는 작년 5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회의의 이어 유러브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공관장 회의이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는 한국 통일에 대한 유러브 지역 우방 국가의 계속적인 지지를 얻기 위한 방안과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와의 외교적 접촉의 강화책이 논의 될 것이며 그 밖에 유러브 지역과의 통상 관계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 될 것이다



1941년 7월 15일 목요일

1941년 7월 15일 목요일. 1941년 7월 15일 목요일. 1941년 7월 15일 목요일. 1941년 7월 15일 목요일.

1. 1941년 7월 15일 목요일
1. 1941년 7월 15일 목요일
1. 1941년 7월 15일 목요일
1. 1941년 7월 15일 목요일

1941년 7월 15일 목요일. 1941년 7월 15일 목요일. 1941년 7월 15일 목요일. 1941년 7월 15일 목요일.

1941년 7월 15일 목요일. 1941년 7월 15일 목요일. 1941년 7월 15일 목요일. 1941년 7월 15일 목요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1941년 7월 15일

